

이긴자 일대기 [12]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조희성 주님은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약소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맛보았습니다. 다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였습니다. 국력배양에 젊음을 불태울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를 갈아 부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유엔군 총사령부에서는 상상 외로 많은 17만 명의 포로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포로 관리에 편리한 섬을 선택하였습니다.

전쟁 상황은 점점 불리하다는 소문과 함께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어디로 가지도 모른 채, 조희성 주님은 포로들과 함께 상륙함(LST)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기 나와와 간다, 하와이로 간다, 괌으로 간다, 바다에 몽팡 수장(水葬)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등 구구한 소리와 억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륙함은 영화관, 교회 등의 시설을 갖춘 큰 군함이었는데, 5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밤이 나무로 제조된 등근 밥통에 담겨 크레인에 의하여 빗줄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단계를 걸쳐 배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 배고픔을 참지 못한 많은 포로들이 일시에 몰려 그 큰 밥통에 매달려 손으로 밥을 퍼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자는 밑에 깔려서 죽어가고, 힘이 강한 자는 밥을 실컷 먹는 일대 이수리장으로 화했습니다. 이때 밑에 깔려 죽은 자가 수십 명이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거제도였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로들을 실은 상륙함이 닿을 내

리며 정박하는 것을 보아 목격지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하10도의 추위 속에 벌벌 떨면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구름다리 바다가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웠는데, 조희성 주님 바로 앞에서 내리던 사람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조할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포로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큰 배 밑에 떨어지면 배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는 자도 살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심조심하여 구름다리를 건너서 작은 배로, 작은 배에서 육지에 도착해 보니 거기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였습니다.

우익 청년들을 학살하는 61포로수용소

주님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아닌 포로로서 연단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2년을 지냈습니다. 논바닥 위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우면 다음 사람은 발쪽에 머리를 두고 눕고, 또 바로 누우면 그 다음은 거꾸로 눕고 하여, 수백 명이 전부 옆구리가 가마니에 닿게 모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를 한 장씩 덮고 잠을 자는데 몇 분만 지나면 체온에 의하여 얼었던 논바닥이 녹아 축축한 물기가 가마니에 스며들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젖고 몸이 젖을 뿐만 아니라 옆에 누운 사람들의 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취와 추위 속에서도 군소리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최하의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 거제 포로수용소 기념관에 전시된 철조망

1개 수용소 포로 인원이 5천 명이었는데, 조희성 주님이 소속된 수용소는 61포로수용소였습니다. 5천 명을 통솔하는 통솔책임자를 뽑는데, 처음 50명을 뽑는 중에 주님이 뽑혔고, 다음 10명을 뽑는 데도 주님이 뽑혔고, 나중엔 5명을, 다음은 2명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 주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을 올렸다 웃겼다 하며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는 통솔 책임자를 어떤 개인이 지명함도 아니요, 5천 명의 의사를 종합하여 투표와 거수 등으로 나이 스물여섯의 조희성 주님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대학교수, 목사 등 사회에서 활약하던 지도급 인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제치고 3년 동안 61포로수용소를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다른 수용소는 책임자가 몇 개월 만에 바뀌었지만 주님이 맡은 61포로수용소만은 책임자가 수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61포로수용소 안에는 극력 좌익계에 몰든 사람들이 많아 어느 수용소보다 우익계 청년들이 학살을 당하고 보복을 받으며 가장 곤욕을 치른 수용소였습니다. 수시로 빨갱이들이 난동을 일

으키고 또 밤마다 인민재판을 벌이고 우익계 청년들을 숙청시켜 토막을 내어 인분 운반통에 담아가다 바다에 버리거나 땅을 파고 매장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조희성 주님도 모포로 뒤집어 씌움을 당한 채 수십 명으로부터 발길질과 못매를 수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비뼈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골병이 들어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용소 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빨갱이들이 태극기를 내리고 빨갱이 깃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죽이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수용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니 미군들이 기관총을 난사하여 수많은 포로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희성 주님의 앞사람과 뒷사람이 기관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데도 조희성 주님 자신만은 총에 맞지 않고 상한 데가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희성 주님을 제거하려는 인민재판

한번은 조희성 주님이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조동지!, 조동지!" 하고 어깨를 흔들며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떡 일어난 주님이, "누구요?" 하고 묻자, "조동지 빨리 나오소." 하며 팔을 잡아끌며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조동지! 빨리 다른 막사로 피하십시오. 오늘 밤에 조동지를 1번으로 죽이게 되었으니 어서 피하십시오."하고 이복받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조희성 주님이 물으니, "그건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전에 대동군 땅을 파고 매장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조희성 주님도 모포로 뒤집어 씌움을 당한 채 수십 명으로부터 발길질과 못매를 수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비뼈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골병이 들어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은 우익 청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조희성 주님을 제1차로 숙청대상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조희성 주님은 옆의 천막으로 피해 누워 있었는데, 잠시 후 큰 돌을 가지고 사람 머리를 찢어 죽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주님 대신으로 억울하게 희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조희성 주님은 얼굴에 검정 솜을 칠하고 길게 내려쓰

는 영국군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하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 노출이 될까봐 밥을 타러 가지도 못하고, 김포 고향친구가 타온 밥을 돌이켜 나눠먹곤 하다가 때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계속 먹지 못하고 굶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면, 추위를 피하여 담요를 뒤집어쓰고 막사 모퉁이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내는 동안 주님은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검정 솜을 발라 위장하고 식당으로 밥을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빨갱이 눈을 피하여 발각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동지가 총을 든 치안대원을 가로막고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은 우익 청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조희성 주님을 제1차로 숙청대상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좌익청년들에게 잡혀서 빨갱이 본부로 끌려가는데, 그들은 빨갱이 대장에게 "대장동무! 죽은 줄 알았는데 조희성 반동아새끼가 살아있어 잡아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빨갱이 대장이 "그 높은 독안에 든 쥐새끼니까 그곳에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빨리 이쪽으로 집합해!"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언지하여 빨갱이들은 주님을 내버려두고 돌아서서 건물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단에 계속

인민군에 쫓겨 철조망 넘다
돌에 맞아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 음성이 며칠 전 밤중에 죽음을 피하게 해 준 음성인데다가 현재 취하는 행동도 도망가라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쳐 높이 막아놓은 철조망 하나를 기어 올랐습니다. 3미터가 족히 되는 철조망을 필사적으로 뛰어넘고 또 한 철조망을 넘는데 인민군 포로들이 "도망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을 거의 올라갈 무렵 돌이 사정없이 날아와 어깨와 팔다리 그리고 등쪽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철조망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한 다리를 남기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뒤통수에 돌을 정통으로 맞아 정신을 잃고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돌맹이에 얻어 맞은 상처가 조희성 주님의 뒷목덜미에 흉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배수로로 굴러떨어져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자, 인민군은 더이상 돌을 던지는 것을 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떨어진 곳이 배수로가 아니고 맨땅이었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없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비를 언제 어느 때에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 요조조로 예비하시어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주님을 건져내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철조망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때마침 미군 경비병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엠블런스에 실려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와 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옆에는 김아열 선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아열 선교사는 전남 광주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로서 포로수용소를 출입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됩니까?"

조희성 주님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아열 선교사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병원이야요. 조 선생은 5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은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전신이 쭈시고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 선생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에 상처가 심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하룻밤을 지내고 나자 머리에 통증도 많이 회복되고 한결 움직이기 수월하였습니다. 김아열 선교사는 환자를 돌보며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조희성 주님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좀 어때요?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좋아지셨군요"

"선교사님 우리 반공포로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대로 방치하시면 반공포로들을 돌보며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조희성 주님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차 말씀을 올렸는데 말을 들어 먹지 않아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이 어렵다면 제가 소탕할 테니까, 저에게 용감한 반공청년 200명만 보내주시면 일개 수용소를 모조리 소탕하여 반드시 빨갱이들을 색출하여 분리하겠으니, 수용소장에게 부탁하여 주십시오"

공산포로들 색출,
반공포로들의 무고한 희생을 저지하다

이렇게 시작하여 김아열 선교사의 주선으로 돛트 수용소장의 허락을 얻어내

어 60단위 수용소의 소탕작전 계획은 착착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조희성 주님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에, 조희성 주님은 200명의 반공청년들을 모아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에게 곡괭이 자루와 야구 방망이를 나누어 주고 인솔하여 첫날 새벽에 61수용소를 기습하여 약질 공산분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영창에 처했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선두에 서서 61수용소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인민군의 붉은 깃발을 내려 불태워버리고 그 대신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더 이상 빨갱이들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정화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희성 주님이 61수용소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사상을 이미 파악해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또다시 61수용소 포로들을 통솔하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60수용소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62수용소에 들어가서 뒤집어엎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62수용소는 최고의 약질 공산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수용소이고 수천 개의 사제무기로 무장한 극렬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 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순적으로 열세인 주님의 특공대는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부상자만 속출하는 가운데 철수하였습니다. 다행히 미군의 경비병력과 한국군의 도움으로 사망자 없이 모두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62수용소를 뒤집는 데 실패한 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인원을 지원받아 63수용소, 64수용소, 65수용소로 쳐들어가서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빨갱이들을 색출하여 영창에 따로 가두게 되니, 수용소에는 반공포로들만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빨갱이들의 인민재판에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

림길에서 불안에 떨었던 반공포로들이 밝은 햇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집는 데 실패한 62수용소에서는 매일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반공 포로들을 죽여 시체를 토막내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빨갱이들은 지름이 1미터 가량 되는 통조림 강릉처럼 생긴 드럼통에 통을 담아서 거제도 바다에 버렸는데, 그때 인민재판으로 처단한 시체를 토막을 내어 통통속에 담아 버렸습니다. 특히나 62수용소와 76수용소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빨갱이 깃발(인공기)을 만들어 게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5월 7일 돛트 장군(Francis T. Dodd)이 76수용소에서 포로가 되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포로를 감독하는 수용소 소장이 포로가 되었으니 미국방성에서는 너무나 격분하여 당장에 수용소 소장을 보트너 장군으로 교체시키고 탱크 부대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쓸어버릴 작전을 수립하였습니다. 72시간 만에 풀려나온 돛트 장군(준장)은 일계급 강등되어 대령이 되었습니다.

보트너 장군(Haydon L. Boatner)은 강력히 밀어붙이는 데 탱크를 앞세우고 새벽에 62수용소를 기습하자 62수용소의 포로들은 사제 무기로 대항하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서 수십 명의 포로가 총에 맞아 죽었고 마침내 힘에 밀려서 62수용소도 점령되었습니다. 공산 포로와 반공 포로를 분류 수용하여 나가는데, 조희성 주님은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료들을 구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앞사람이 총탄에 맞아 죽고 뒷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긴자 일대기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4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4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다. - 2탄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and become God.' - Part 2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 계시록)
Salvation is achieved only through resurrection. (Revelation)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말한다.
The resurrection spoken of here refers to the resurrection of the Spirit of God who is reborn by the Holy Spirit.

안식일에 참여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4장)
You must participate in the Sabbath to be saved. (Hebrews 4)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일에는 이기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Only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by the victorious Spirit of God can participate in God's eternal Sabbath.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7: 21, 로마서 1:10)
You can only be saved by walking in God. (Matthew 7:21, Romans 1:10)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나라는 의식'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If we do God's will, we can abandon 'The Awareness of I' and be born again in the Holy Spirit.*

by Alice